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27:4)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2월 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목소리 높여서 / 찬송가 6(신) 8(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7번 (시편 13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찬송가 286(신) 218(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마태복음 4장 1-11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주 은혜임을(주 나의 모습 보네)

말씀 선포 / 붙드는가, 이용하는가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찬송가 425(신) 21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이 천지간 만물들아 / 찬송가 5(신) 3(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배고픔이라는 약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자극하며 유혹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죄 자체에 있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들됨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2.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용하며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은 순종의 자리에서 떠날 때, 믿음이 아니라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 줍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신적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충만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두 나라

마 6:19-34

1. 믿음이 작은 삶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30)라고 말씀하신 건, 단순히 꾸짖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필요와 안전을 먼저 계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지적하신 거죠. 보물을 땅에 쌓고, 눈이 어두워지고, 두 주인을 섬기며, 의식주를 염려하는 삶—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작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염려와 계산된 습관이,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랍니다.

2. 두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믿음이 작다는 건 결국 두 나라를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과 행동은 재물, 안전, 편리함, 미래 계획 같은 세상의 왕좌를 따라 움직이죠. 하루하루의 결정과 생각 속에서 마음이 분열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두 나라 사이에서 끌려 다니는 증상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3.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단위로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의지하며 사는 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마 6:33)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신뢰가 쌓일 때, 두 나라 사이에서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늘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2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6.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경공부,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장을 미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한미숙(1)		조창(8)	박승화(15)	한광기(22)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27:4)

다윗은 왕이었지만, 권력과 안전, 인정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구한 한 가지는 단순한 평안이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임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함은 연약한 인간에게 놀라운 힘과 복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삶 속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만들어 냅니다.

다윗은 그 아름다움 안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강했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